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으로 이제 신명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그의 나이 120세에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울러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인 모세 5경 또한 마치게 됩니다.

모세는 오늘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 같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앞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원하는 예언과 같은 축복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출 6:7)."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할 때, 살아계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마는 그 중에 한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 이시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격적 이시라는 의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신앙 생활을 하셔야 그 신앙 생활이 올바른 신앙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분과의 관계를 맺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

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만 두시지 아니하시고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만한 아무런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지마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갈3:26)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 받을 상속자로까지 삼아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갈3:29).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불러주시는 데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분의 사랑을 받고 또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죄인들은 그 아름다운 관계를 끊임없이 깨뜨리며 허무하고 목석에 불과한 우상들을 따라가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러한 관계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33:3)'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해 주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명문화된 말씀만을 내려 주시고 멀리 인간들의 세상 밖에서 바라만 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인식하고 있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 비록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분의 율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명령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 또는 저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하나의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분의 명령에는 그 자체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1년이 아니라 평생에 한번도 읽지 않으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 자신도 예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힘든 일 가운데 하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값진 보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말씀의 보화를 캐내게 될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년에 최소한 1번이라도 성경을 읽자'라는 의미에서 이 매일 성경 통독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 안에 있는 값진 보화를 캐내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